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6. 10. 28.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다 같 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2절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네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왕

3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4절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코러스 어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대표 기도 ----------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 **기 도 자**

성경 봉독 ---------- 창세기 32장 13~32절 (중심 구절: 27~28절) ---------- **다 같 이**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의 인생길에는 낙심과 두려움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본문의 야곱 역시 인생 최대의 막다른 골목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의 야곱은 극심한 심리적 공황 상태(Panic)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성적인 두려움을 떨쳐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이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는지 살펴볼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인간적인 수단과 꾀의 한계

본문 13~16절 13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4 암염소가 이백이요 숫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숫양이 이십이요 15 젖 나는 낙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16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야곱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예물을 준비하여 여러 떼로 나누어 보냅니다. 이 장면에 대해 "야곱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과 심리전(인간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조공식 배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얍복 나루를 건너보낸 후, 홀로 남게 됩니다. 이 모습은 끝까지 자신의 지혜와 물질로 인생의 문제를 통제해 보려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돈, 인맥, 혹은 자신만의 치밀한 계산(잔머리)을 더 의지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유한한 방법으로는 영혼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예물 작전'과 인간적인 잔꾀를 내려놓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홀로 남은 자리에서의 영적 씨름

본문 24~26절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모든 의지할 것들을 떠나보내고 얍복강가에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한 '어떤 사람(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 찾아와 씨름을 걸어옵니다. 여기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표현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와 수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야곱의 지독한 영적 고집과 인간적 본성이 그만큼 강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힘의 근원이며 생명의 중심인 '허벅지 관절(환도뼈)'을 쳐서 그를 무력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철저히 혼자 있게 만드십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이 떠나가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곁에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벅지 관절'과 같은 세상적 힘의 근원을 치실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려는 가슴 아픈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자아의 파쇄와 새 이름의 축복 (27~32절)

본문 27~29절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날이 새려 하자 야곱은 부러진 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를 사생결단으로 붙잡으며 축복을 구합니다. 이때 주님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이 "단순히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는 평생 남을 속이고 움켜쥐며 살아온 자(야곱)임을 스스로 고백하라'는 회개 촉구의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이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십니다. 다리가 부러져 절뚝거리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승리자가 되는 영적 역설이 일어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릎 꿇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여전히 "움켜쥐는 자"인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매달리는 "이스라엘"의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내 부끄러운 실상과 이름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여 개인과 가정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돋는 해와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씨름을 끝내고 브니엘(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의 육신은 허벅다리가 어긋나 평생 절뚝거리며 걸어야 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당당하게 에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꾀와 힘을 의지해 힘차게 뛰었으나 영적으로는 늘 도망자였던 야곱이, 이제는 비록 절뚝거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지팡이 삼아 전진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브니엘의 아침'이 찬란하게 밝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눔 ---------- 다 같 이

1. 야곱처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나 방법을 먼저 의지했던 경험이 있나요?
2. 야곱이 홀로 남아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3.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듯이, 우리 가정에는 어떤 믿음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중 보 기 도 ---------- 베이 지역과 미국을 위해 ---------- 다 같 이

1. 미국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진리를 선포하도록
2. 이민자들과 소외된 이웃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3.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4. 베이 지역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5. 베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동성애가 떠나가도록

마무리 기도 ---------- 다 같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얍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